

# 한국어-영어 품사의 유형론적 비교연구\*

안종기 · 송경안

(대불대학교 · 전남대학교)

Ahn, Jongki & Song, Kyung-An. 2011. A Contrastive Study of Korean-English Word Classe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213-23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ast the word classes of Korean and English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Word class" here does not mean simply the traditional parts of speech. It also includes the word groups which are not classified as separate word classes in individual grammar, but are nevertheless important and meaningful in linguistic typology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Some remarkable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two languages. In Korean the distinction between verbs and adjectives is not clear. English conjunctions are expressed in Korean through verbal endings or postpositions. Korean pronouns have an open system, whereas the English language has a closed pronoun system. English is a prepositional language and Korean is a postpositional language. In contrast to English, ideophones and classifiers are well developed, but articles are not identified in Korean.

**Key Words:** word classes, parts of speech, typology, Korean-English, contrastive study,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를 언어유형론적 입장에서 비교하려고 한다. 품사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론적 연구로는 Schachter (1985), Sasse (1993), Anward (2001)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Schachter (1985)와 Sasse (1993)는 어류의 기능과 형태에 기초해서 유형론적으

---

\* 제1저자: 안종기, 교신저자: 송경안. 이 논문은 2011년도 대불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었는바 필자들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들은 모두 필자들의 것이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경안 (2008) 참조

로 의미있는 다양한 어류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송경안 (2008)은 이들을 바탕으로 품사의 유형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Anward (2001)는 암스테르담 언어유형론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의미 혹은 대화상황에서 출발해서 품사로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미적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sup>2)</sup> 본 연구는 Schachter (1985)와 Sasse (1993)의 방식에 따라 한-영 품사를 대조 분석할 것이다. 송경안 (2007)은 한국어의 품사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본 논문에 나타난 언어유형론적인 내용은 별도의 출처가 없는 한 이들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품사는 어류(word classes)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품사와 언어유형론에서 말하는 품사는 약간 다르다. 즉 개별언어에서는 보통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 어류들도 유형론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라면 언어유형론에서는 별도의 어류로 보고 논의할 수 있다. 관사나 조동사, 분류사(classifiers), 의성·의태어(ideophones) 등이 그 예이다.

한국어-영어의 대조 분석이라는 것이 진부한 주제처럼 보이고 더구나 분석 대상이 품사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개별언어 관점에서의 단순한 대조분석이 아니고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은 두 언어의 비교분석에 보다 객관적이고 언어보편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의 한국어-영어 대조분석은 주로 영어교육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이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바 본 연구는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의 대상으로 영어를 택한 것은 시대적으로 영어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언어 혹은 문법에 대한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인식이 제1외국어인 영어의 문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2.1), 접속사(2.2), 전치사와 조사(2.3.), 대명사(2.4.), 관사(2.5.), 조동사(2.6.), 계사(2.7.)를 비롯해서 의성·의태어, 분류사(2.8.) 등 유형론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어류들을 대조 분석할 것이며 해당 어류에 대해 유형론적 관점을 먼저 제시하면서 두 언어의 어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한국어-영어 어류의 비교

### 2.1.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언어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금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경안 (2007) 참조

까지 우리는 이러한 유럽 언어학의 전통에 따라 한국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sup>3)</sup> 그러나 유럽을 벗어나 다양한 언어를 관찰해 본 결과 이는 유럽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 드러났고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언어가 흔히 발견된다는 것이 언어유형론 연구의 결과이다 (Dixon, 1982; Puster, 1989, Bhat, 1994; Stassen, 1997; Rijkhoff, 2000: 217; Dixon, 1977; Sasse, 1993: 662). 이에 따르면 형용사-동사의 구별은 물론이고 명사와 동사의 경계도 애매한 언어들이 있다. 주요 어휘범주라고 할 수 있는 명사-동사-형용사의 분화 상황에 따라 Rijkhoff (2000)은 세계 50개의 언어를 [표1]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서 빗금은 유동적 범주를 뜻하고 이음줄은 분화범주를 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동사/형용사를 하나의 품사로 분류하는 것은 언어유형론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의 Type 4/5는 동사(술어)와 명사가 아무런 구분이 없는 언어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정도의 문제이고 또 이 두 가지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언어는 투스카로라어(Tuscarora)이다. 즉 (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언어에서 모든 단어는 술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Hengeveld, 1992; 66f; Croft, 2000: 70f). (1a)의 *ra-kwá:tihs*는 '(He is) young.' 이라는 술어나 문장표현도 되고 'boy'라는 명사표현도 된다. (1b)의 *ka-téskr-ahs* 역시 '(It) stinks.'라는 술어나 문장표현도 되고 'goat'라는 명사표현도 된다. 따라서 예문 (1c)는 세 개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언어에는 술어(동사)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표1: N, V, A 분화에 따른 언어유형의 예]

|          |       |   |
|----------|-------|---|
| Type 1   | V/N/A | Samoan  |
| Type 2   | V-N/A | Hurrian, Imbabura Quechua   |
| Type 3   | V-N-A | Abkhaz, Alambalak, Basque, Berbice, Bukiyip (Mountain Arapesh), Burushaski, Dutch, Guarani, Hittite, Hmong Njua, Hungarian, Ika, Kayardild, Ket, Nama Hottentot, Nasioi, Ngalakan, Ngiti, Oromo, Sumerian, Wambon |
| Type 4   | V-N   | Babungo, Bambara, Burmese, Chukchi, Galela, Gilyak, Gude, Hixkaryana, Kisi, Koasati, <b>Korean</b> , Krong, Lango, Mandarin Chinese, Nung, Pipil, Nunggubuyu, Sarcee, Tamil, Tsou, Vietnamese, West Greenladic    |
| Type 4/5 | V(-N) | Cayuga  |
| unknown  | -     | Etruscan, Meroitie, Nahali  |

3) 한국어 문법학자 가운데 이 두 가지 품사를 구분하지 않는 학자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광정, 1987: 232f 참조).

- (1) a. ra-kwá:tihs  
 MASC.SUBJ-young  
 'he is young' = 'boy'
- b. ka-téskr-ahs  
 NEUT.SUBJ-stink-IMPERF  
 'it stinks' = 'goat'
- c. ra-kwá:tihs                      wa-hr-ø-atkáhto-ʔ  
 MASC.SUBJ-young    PAST-MASC.SUBJ-OBJ-look.at-PUNCT
- ka-téskr-ahs  
 NEUT.SUBJ-stink-IMPERF  
 'He is young, he looked at it, it stinks.'  
 = 'The boy looked at the goat.'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잘 안 되는 언어의 예는 뉴욕 지방의 원주민어 모호크어 (Mohawk)에서 볼 수 있다. 이 언어에서는 형용사라는 품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위 상태동사(stative verb)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aker, 2003: 4). 상태동사란 동사와 형태적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형용사를 말한다. (2-3)은 모호크어의 예이다(같은 책, 4). 이 예에서 우리는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상태상(stative)과 과거시제 표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sup>4)</sup>

- (2) a. ka-rák-Λ  
 NsS-white-STAT  
 'It is white.'
- b. t-yo-ya't-Λ'-Λ  
 CIS-NsS-body-fall-STAT  
 'It has fallen.'
- (3) a. ka-hutsí-(ø)-hne'  
 NsS-black-(STAT)-PAST  
 'It was white.'
- b. t-yo-ya't-Λ'-Λ-hne  
 CIS-NsS-body-fall-STAT-PAST  
 'It had fallen.'

4) NsS = neutral singular subject, CIS = cislocative. CIS는 향화자 방향소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는 이 두 가지 품사가 구별이 안 되는 언어가 많고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유형론적으로 볼 때 한국어도 여기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이들은 모두 (4)와 같은 중요한 형태적 특징들을 공유한다. 품사분류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정도의 형태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같은 품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기본형 어미 “-다”는 다른 어류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적 특징이며 대표적인 서술문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 (4)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

- a. 동일한 기본형 어미 “-다”로 끝난다.
- b. 시제를 가질 수 있다.
- c. 어형변화에 큰 차이가 없다.<sup>5)</sup>

많은 언어에서 술어는 기본형이 따로 있고 이들은 문장 안에 들어 갈 때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의 9개 주요 언어의 상황을 보면 (5)와 같다. (5)에서 유럽 언어들은 기본형의 어미를 공유하는 어류를 하나의 품사(동사)로 보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술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5) 술어의 기본형에 따른 언어유형

- a. 기본형의 어미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b. 기본형의 어미가 별도로 없는 경우: 영어, 중국어
- c. 아랍어: 3인칭 남성 단수 과거형을 기본형으로 간주<sup>6)</sup>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부류가 모든 형태적 특징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위 모호크어에서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종료상(punctual)이나 습관상(habitual)을 취할 수 없다 (Baker, 2003: 5). 한국어의 경우도 “-고 있다”를 붙여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는 의견도 있다. 이 역시 상(aspect)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언어유형론자들이 모호크어에서 특정한 상

5)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 사이에 약간의 형태적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품사를 설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6) 아랍어에서 이는 사전에 실린 기본형이긴 하지만 인칭, 시제 등이 정해진 정형(finite form)이다. 부정형(infinitive)이라고 볼 수 있는 동사의 원형(root)은 세 개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형태적 공통점이 없다.

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동사/형용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어에서도 "-고 있다" 구문을 두 가지 품사의 구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경우도 모든 동사가 진행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6) 참조). 그렇다고 해서 영문법에서 진행상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품사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그냥 이들을 동사의 하위 범주로 간주한다. 한국어에서도 상의 차이가 이들을 별도의 품사로 설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으며 동일한 품사의 하위범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6) \*I am believing/knowing that Mary is married.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현재형에서의 어형변화이다((7) 참조). 즉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은 현재형에서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는 점이다. 그러나 (7)의 차이 역시 두 개의 품사를 구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품사의 하위범주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 a. 영희는 잔다. (o) / 자다. (x)  
 b. 영희는 예쁘다. (x) / 예쁘다. (o)

## 2.2. 접속사

한국 사람은 보통 한국어에 당연히 접속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문법 학자들이 이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광정, 1987: 232f 참조). 이 역시 유럽 문법의 영향이리라고 짐작된다.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접속사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바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 이 입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접속구문은 (8)과 같이 크게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6 가지가 된다 (Haspelmath (ed.), 2004). 등위접속의 단위는 단어, 구, 문장이 될 수 있으나 종속접속의 단위는 문장이다. 유형론적으로 등위접속은 명사접속과 문장접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장접속은 술어(동사) 접속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Heine, 2004a). 종속접속에서 형용사절은 흔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유럽 언어들이 형용사절을 만들 때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물론 모든 언어가 형용사절을 만들 때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가 그 한 예이다.

- (8) 접속구문의 종류  
 a. 등위접속: 연접('and'), 이접('or'), 역접('but')  
 b. 종속접속: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6 가지의 접속구문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표현되는 양상을 보면 (9-10)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의 경우 접속표지가 분명하게 하나의 단어로 나타나고 이들을 별도의 어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등위접속 구문의 경우 명사접속은 조사로 실현되고 동사접속은 어미로 실현된다.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단어의 지위를 가지며 하나의 독립된 품사이기 때문에 등위접속에 사용되는 조사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품사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접속기능은 많은 경우 술어의 어미로 실현되는데, 품사는 단어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어미는 단어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9)의 등위접속 구문에 사용되는 어미들은 품사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국어에서 등위접속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며 여기에 별도의 품사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 (9) 영어와 한국어의 등위접속 구문

[연접구문]

- a. John **and** Mary
- b. 철수**와** 영희
- c. John sleeps **and** Mary sings.
- d. 철수는 자**고** 영희는 노래한다.

[이접구문]

- a. John **or** Mary
- b. 철수**나** 영희
- c. John sleeps **or** Mary sings.
- d. 철수가 자**거나** 영희가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역접구문]

- a. John sleeps, **but** Mary sings.
- b. 철수는 자**지만** 영희는 노래한다.

#### (10) 영어와 한국어의 종속접속 구문

[명사절]

- a. John thinks/knows **that** Mary is honest.

7)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oonan (1985), Keenan (1985), Kortmann (1997) 참조

- b. 철수는 영희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 정직한 것을 안다.
- c. 철수는 영희가 정직한 것을 안다.

## [형용사절]

- a. the man **whom** I met yesterday
- b. 내가 어제 만나-ㄴ 사람

## [부사절]

- a. **because** John is ill
- b. 철수가 아파서
- c. 철수가 아프기 때문에

(10)의 한국어 종속접속 구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명사절에서 영어의 종속접속사 *that*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고”와 “-ㄴ 것” 등인데 전자는 어미이고 후자는 “어미 + 의존명사” 구조로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별도의 품사를 설정할 만한 근거는 될 수 없다. 형용사절은 어미 “-ㄴ, -는” 등으로 실현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어미는 품사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사절도 술어의 어미나 의존명사 구문 등으로 실현되며 여기에서도 특별히 별도의 품사를 설정해야 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어에 접속사를 설정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등의 어류를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한국어 문법에서 접속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유형론적으로 정통 접속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9)-(10)의 구문들이 한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9)-(10)의 구문과 “그리고”류의 구문은 약간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후자는 문장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점이 다르다. 후자는 영어의 *therefore*, *thereafter*, *thereby* 등과 같은 것으로 영문법에서처럼 부사의 일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류의 낱말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간에 (9)-(10)과 같은 접속 구문의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중요할 것이다.

### 2.3. 전치사와 조사

문장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사(술어)와 하나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다. 명사가 여럿일 경우 그 기능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말이 전치사 및 후치사(*postposition*)이다. 이들을 아울러 부치사(*adposition*)라고 부르는데 부치사의 위치에 따라 우리는 세계의 언어를 전치사형 언어와 후치사형 언어로 나눌 수 있다 (Heine, 2004b).



유럽 언어는 전자에 속하고 한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후치사를 한국어와 일본어 문법에서는 조사라고 부른다 (박선옥 · 양경모, 2008).

명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는 부치사 외에도 어형변화나 어순이 이용되기도 한다. 영어의 경우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11) 참조).

- (11) 영어의 명사 기능표시: 어순, 어형변화, 전치사
- a. The man loves the woman. (어순)
  - b. **I** love **him**. / **He** loves **me**. (어형변화: 대명사)
  - c. The man wrote the letter **with** a pen. (전치사: 도구격)

한국어 명사의 기능(격)은 모두 후치사로 표현되며 통가어(Tonga)는 모두 전치사로 표현된다. (12)는 통가어 격표시의 예이다. 이 언어에서는 주격도 전치사로 표시된다.

- (12) 통가어의 전치사에 의한 격표시 (Comrie, 1978: 329)
- |      |          |     |        |     |           |
|------|----------|-----|--------|-----|-----------|
| Na'e | tāmate'i | 'e  | Tēvita | 'a  | Kōlaiate. |
| PAST | killed   | NOM | David  | ACC | Koliate   |
- 'David killed Koliate.'

영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조사는 몇 가지 형태적, 기능적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의 조사는 (13)과 같이 4가지 기능을 갖는다.

- (13) 한국어의 조사의 기능 (영어와 비교해서)
- a. 격 기능: 철수가 잔다. (주격 표시)
  - b. 전치사 기능: 철수는 학교에 갔다. (to school)
  - c. 접속사 기능: 철수와 영희가 왔다. (John and Mary)
  - d. 부사적 기능: 철수도/조차 안 간다. (John also, even John)

한국어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가 “-에/-에서” 밖에 없는데 반해 영어 등 유럽 언어는 (14)와 같이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세분되어 있다. 한국어는 상대적인 위치를 해당 위치명사에 처소격 조사를 결합해서 표현한다. 이때 위치명사를 Heine (1989, 2004b)는 부치사의 일부로 보고 N-부치사라고 부른다. N-부치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Xun어 등에서도 관찰된다 (Heine, 2004b).

## (14)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

영어: in, on, under, over, by, before, between, behind, beside

국어: 방 안에, 책상 위에, 책상 밑에, 집 뒤에, 책상 옆에

이밖에도 형태면에서 두 언어의 부치사가 차이가 많다. 영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조사가 하나씩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의 전치사가 한국어에서는 구절표현(phrase)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또 여러 개를 겹쳐서 쓰는 일이 많다.<sup>8)</sup> 영어의 경우 복합전치사가 있는데 이는 문법화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것들로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때문에, -대신에, -에 따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2.4. 대명사

한국어-영어 대명사와 관련해서 유형론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sup>9)</sup> 첫째, 한국어의 대명사는 열린 체계(open system)이고 영어의 대명사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sup>10)</sup> 둘째, 한국어는 3인칭 대명사가 잘 발달하지 않은 반면 영어는 잘 발달해 있다. 셋째, 한국어는 대명사의 생략이 자유로운 반면 영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보통 유럽 언어의 체계에 익숙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언어의 대명사 체계가 당연히 닫힌 체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통사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Schachter (1985)와 Sasse (1993)도 대명사를 대표적인 폐쇄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인칭대명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그 수가 한정된 범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대륙을 벗어나면 열린 체계의 대명사를 가진 언어를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으며 한국어가 그 대표적인 언어이다. 즉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대명사 생략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 문장 (15)에서 주어 *you*에 해당하는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16)과 같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의 2인칭 표현은 가히 열린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15) Where are you going?

(16) 생략형/너/당신/자네/댁은/거긴/영수/순희/학생/아주머니/아저씨/할머니/고모/이모/형/선생님/계장님/과장님/부장님/사장님

8) 이러한 예는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König, 2004, 15).

9)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송경안 (2010) 참조

10) 순순하게 대명사만을 고려하면 열린 대명사 체계는 있을 수 없다. 본 논문은 대명사 대체표현(substitute) 까지를 넓은 의미의 대명사류에 포함시키고 대명사의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유형론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이라고 판단된다 (Bernd Heine, 개별면담).

한국어 1인칭 대명사에서도 우리는 열린 체계를 관찰할 수 있으며, 3인칭 대명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열린 대명사 체계는 이밖에 일본어, 타이어, 버마어 등 아시아 지역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한국어와 아주 유사하다 (Okell 1969: 99ff; Hinds 1986: 258f; Diller 1994: 149f 참조).

대명사의 인칭과 관련하여 언어유형론적으로 또 한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3인칭으로 쓰이는 대명사를 인칭대명사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Sasse (1993: 670)는 3인칭 대명사가 잘 발달하지 않은 언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Bhat (2004: 4f)는 인칭대명사와 그 밖의 대명사들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들을 각각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와 대용사(proform)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3인칭 지시어가 인칭대명사의 특징을 보이는 언어도 있고 대용사의 특징을 보이는 언어도 있다.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들은 '3인칭 대명사가 형태적으로 지시대명사 *this, that* 보다는 1,2인칭 대명사와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언어에서는 1,2,3인칭 대명사가 형태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고 그 밖의 지시사와는 어원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3인칭 대명사들이 지시사와 형태가 같고 1,2인칭 대명사와는 형태적 공통점이 없는 예를 칸나다어(Kannada, Dravidian)에서 볼 수 있다. 즉 이 언어에서 복수형 표지가 3인칭 대명사에서는 일반명사와 같고 1,2인칭에서는 이와 다르다 (Bhat 2004: 14). 또 3인칭 대명사들은 '이, 그, 저, 어느'를 뜻하는 지시사/부정대명사에서 유래한 것이며 1,2인칭 대명사는 이들과 어원적으로 연관이 없다 (Krishnamurti 2003: 243, 253).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의 언어를 유형론적으로 2가지 인칭대명사 체계 언어와 3가지 인칭대명사 체계 언어로 구분할 수 있겠다 (Sasse 1993). Bhat (2005)는 이와 관련해서 225개의 언어를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125개의 언어가 2가지 인칭대명사 체계였고 100개의 언어가 3가지 인칭대명사 체계였다.

영어는 대명사를 생략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비해 한국어는 보통 문맥상 이해가 가능한 대명사를 생략한다. (17)과 같은 간단한 대화를 비교해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17) 영어-한국어 대명사 생략

- A: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십니까?)  
 B: I am going to the downtown. (시내에 갑니다.)  
 A: Do you go shopping? (시장 보러 가세요?)  
 B: Yes, I go shopping. (예, 시장 보러요.)  
 A: When do you come back? (언제 돌아오세요?)  
 B: I come back in two hours. (두 시간 후에 옵니다.)

대명사 생략은 한국어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며 로맨스어, 슬라브어, 아랍어, 시노-티베트

계통의 언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Diller 1994; Mcshane 2005: 200f; 이충희 · 김원필 2008; 허성태 · 임홍수 2008; 정규영 2008: 582). 유럽 언어 가운데서는 스페인어가 대표적인 대명사 생략 언어이다 (이충희 · 김원필 2008: 550ff). 이 언어에서는 주어와 1,2인칭일 때는 주어를 쓰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sup>11)</sup> 주어와 3인칭인 경우에도 혼동의 여지가 없으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어에서는 또 주어와 불분명한 경우도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2.5. 관사

영어와 한국어 품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관사이다. 품사의 유형론을 다루는 Sasse (1993)는 영어의 관사 *a(n)*, *the*를 개별언어 특수 어류로 본다. Schachter (1985)는 이를 지시사들과 같은 범주로 묶고 있는데 영어에서 관사의 특수한 기능을 감안할 때 Sasse의 입장이 언어유형론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사는 영어에만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어의 특수 어류로 보는 Sasse의 입장도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 즉 관사가 발달해 있는 언어가 많기 때문에<sup>12)</sup> 이를 특수 어류가 아니라 보편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계 언어를 관사가 발달해 있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로 유형화할 수 있다 (Dryer, 2005a, b). 우리말의 경우 관사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형론적으로 영어 등 유럽 언어들과 구별되기도 한다.

(18)의 문장은 해당 언어의 관사 발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관사가 발달한 영어의 경우 명사 앞에 정관사를 쓰고 있는데 관사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는 명사 앞에 별다른 수식어가 없다. 만일 (18)에서 한국어 문장에 지시어를 쓰게 되면 영어 문장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 (18) a.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b. **The** dog barks. (개는 짖는다.)

## 2.6. 조동사

지구상에 조동사가 없는 언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동사란 원래 본동사로 쓰이던 말이 시간이 감에 따라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다른 동사에 대해 보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Heine, 1993; Anderson, 2000 참조).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통 이들을 보조동사 혹은 보조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조동사”와 같은 말이다. 한국어 조동사의

11) 이 경우 동사 활용어미로 주어를 식별할 수 있다.

12) Dryer (2005a,b)가 조사한 566개 언어 가운데 정관사가 발달한 언어는 253개이며 부정관사는 473개 언어 가운데 181개 언어에 발달해 있다.

예를 우리는 (19)에서 볼 수 있다.

(19) 한국어 조동사의 예

- 주다.** 숙녀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영어를 가르쳐 주다  
**버리다.** 영희가 그냥 가 버렸다. / 그냥 다 먹어 버렸다.  
**보다.** 빨리 엄마한테 가 보이라. /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오다/가다.** 손발이 시려 온다. / 방바닥이 식어 간다.

한국어의 조동사와 영어의 대표적인 조동사인 양상 조동사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우선 영어에 “can, may, must, shall, will” 같은 양상 조동사들이 있는데 한국어에는 이러한 조동사가 없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의 단어로 발달해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영어의 양상 조동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동사와 구별되는 형태적, 통사적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면, 3인칭 단수 현재시제에서 형태변화가 없고, 과거분사형이 없고, *to*-부정사 구문을 만들지 못하고, 완료형이나 동명사도 만들지 못한다((20) 참조). 이밖에도 영어의 조동사는 부정문(negation)에서 부정의 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문문에서 본동사와 도치되고 (invert), 응답문에서 본동사 없이 쓰일 수 있고(code position), 강세(emphasis)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어 조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NICE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nderson 2000: 810).

(20) 영어 조동사의 형태적 특징

- a. 인칭변화하지 않는다. \*He cans swim.  
 b. To-infinitive를 취할 수 없다. \*I want to can swim.  
 c. 과거분사형 및 완료형이 불가능. \*I have could finish it.  
 d. 동명사나 현재분사형이 없다. \*canning / \*musting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조동사들은 다른 동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유럽 언어 가운데서도 조동사가 이처럼 독특한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이는 것은 영어와 독일어 등 게르만 계통의 언어들이며<sup>13)</sup> 로망스어나 슬라브 계통의 언어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송경안/이기갑 외, 2008 참조).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 영어와 독일어의 양상 조동사가 오히려 독특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Sasse (1993)는 따라서 영어의 양상 조동사를 개별언어 특수 어류로 분류한 바 있다.

13) 영어와 독일어의 양상 조동사도 형태·통사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더 자세한 것은 송경안·김순임 (1998) 참조.

## 2.7. 기사

기사(copula)란 술어로 직접 쓰일 수 없는 어류들을 도와 술어 기능을 하도록 하는 요소이며 보통 동사와 같이 활용을 한다 (Schachter, 1985: 55). 기사가 동사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21)의 하우스어(Hausa)가 그 예이다. 즉 이 언어에서 동사는 목적어 앞에 오며 시제와 상에 따라 활용을 한다. 그러나 기사는 술어명사 뒤에 위치하며 명사의 성에 따라 형태가 다를 뿐 동사처럼 활용하지는 않는다. (21)에서 *ce*는 여성 기사이며 그 밖의 경우는 *ne*를 쓴다 (같은 책, 55).

- (21) a. Ita yarinya *ce*  
           she girl     COP  
           'She is a girl'  
       b. Shi yaro *ne*  
           he boy     COP  
           'He is a boy'

한국어와 영어의 기사는 동사와 같이 활용을 하는데 그 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국어는 형용사가 직접 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 술어 구문에서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다. 또 영어에서는 기사가 부사와 결합해서 술어를 만드는데 한국어의 기사는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영어의 기사구문과 한국어 대응표현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난다 ((22) 참조).

## (22) 영어 기사구문과 한국어 대응표현

[영어 기사구문]

- (a) John is tall. (형용사)  
 (b) John is my brother. (명사)  
 (c) John is away. (부사)  
 (d) John is from Canada. (전치사구/부사구)  
 (e) John is in Canada. (전치사구/부사구)

[한국어 대응표현]

- (a') 철수는 크다. (형용사)  
 (b') 철수는 내 동생이다. (명사)

- (c') 철수는 갔다.
- (d') 철수는 캐나다에서 왔다
- (e') 철수는 캐나다에 있다.

한편 한국어의 계사 “-이다”도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의 계사가 갖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홍재성, 1999: 221ff 참조).

- (23) 한국어 계사의 다양한 기능
- a. 너 어디야? 응, 나 지금 전남대학이야.
  - b. 우리는 내일 출발이다.
  - c. 뭐 마실래? 응, 난 이 집에 오면 언제나 커피야.
  - d. 저 애는 항상 말썽이다.

한국어문법에서 “-이다”의 품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학자에 따라 이를 조사로 보기도 하고 동사로 보기도 한다(남기심/고영근, 1987: 243). 유형론적으로 볼 때 계사는 보통 동사(술어)와 같이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 “-이다”는 술어와 같이 활용한다. 따라서 굳이 품사로 분류하자면 술어와 동일한 품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4)</sup> 유형론적 관점에서 그냥 “계사”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조사로 보는 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형론적 논의에서 계사를 부치사(조사)와 결부시키는 일은 없다. 둘째, 문법화 및 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부치사는 전형적인 불변사에 해당하는 데 “-이다”는 그렇지 않다. 셋째, 격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즉 격이란 문장 안에서 술어와 명사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서술격”이란 격은 있을 수 없다.

## 2.8. 그밖에 의미 있는 어류들

**의성·의태어(ideophones):** 한국어는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언어인데 반해 영어는 이러한 어류가 잘 발달해 있지 않다. Schachter (1985)는 의성·의태어를 부사의 하위범주로 간주하는데, Sasse (1993)는 의성·의태어를 별도의 중요한 어류로 분석한다. 부사 이외의 품사에도 의성·의태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특수한 어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의성·의태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예로는 우리말의 “빠꾸기, 딱따구리, 어슬렁거리다, 사랑대다” 등이 있다. 개별언어 문법에서 의성·의태어를 별도의 품사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유형론적으로는 의미있는 어류라고 하겠다.

14)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다”가 형용사와 같이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분류사(classifier):** 분류사(classifier)도 한국어에는 잘 발달해 있으나 영어에는 없는 어류이다. 이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단위명사로서 우리말의 “소 두 마리, 연필 한 자루” 등의 표현에서 “마리, 자루”가 그 예이다. 분류사는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에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타이어에는 50개 이상의 분류사가 있다 (Schachter, 1985: 39). 이 역시 개별언어 문법에서 별도의 품사로 간주하기는 어렵겠지만 유형론적으로는 의미있는 어류이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한국어의 특수기능어로 볼 수 있겠다. 즉 이는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통사적인 특징을 갖는 명사들인데, 그 기능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류로 묶기 어려운 낱말들이기도 하다 (남기심·고영근, 1985: 70ff 참조). 영어에는 이러한 어류가 없기 때문에 영어 화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이는 일본어의 형식명사에 해당하는 어류로서 (양경모, 2003), 한국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한국어 특수 어류로 보아야 할지 애매해진다. 즉 이것이 알타이어 계통의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하나의 유형론적 어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관형사:** 한국어 품사분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형사라는 범주의 설정이다. 이는 일본어 문법의 연체사(連体詞)와 같은 개념이며 (양경모, 2003) 지시사, 수량사, 일부 형용사를 아우른 어류이다. 품사 분류는 언어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관형사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활용하지 않은 명사 수식어라는 형태적, 기능적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유형론 관점에서는 개별언어의 형태론적 특징까지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나 일본어의 관형사를 독립된 어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지시사, 형용사, 수량사의 세 가지 어류로 분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어의 “새, 헌” 등은 형용사의 하위부류로 보면 된다. 즉 우리말의 형용사는 술어로 쓰이며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용하지 않으면서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sup>15)</sup>

### 3. 마무리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 혹은 어류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비교하였고 이로서 우리는 두 언어의 품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언어보

15) 2.1.에서 필자들은 한국어는 형용사·동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절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형용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다.



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유럽언어와는 달리 한국어에 동사와 형용사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동의한 바이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언어유형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었다.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접속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역시 유형론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이 점에서 영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대표적인 후치사형 언어이며 영어는 대표적인 전치사형 언어이다. 대명사 체계에서도 한국어와 영어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어는 관사가 발달한 언어이며 한국어는 관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이다. 영어의 양상 조동사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특수 어류이며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조동사들은 특별한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계사는 언어보편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에 따라 그 쓰임은 약간씩 다르다. 한국어에는 이밖에 의성·의태어, 분류사 등이 발달해 있으나 영어에는 이러한 어류가 발달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결론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학술적, 실용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언어의 시각에서 진행되었던 두 언어의 품사 대조에 대해 본 연구는 유형론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장차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 특별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문법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접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명시적 언어 지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국어인 한국어마저도 이러한 영어 문법의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영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천 개의 언어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이것이 모든 언어를 바라보는 준거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어를 바라 볼 때,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마당에 영어적 언어인식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며, 한국어 구조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본 연구는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어와 영어의 여러 가지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추후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김승곤. (1992). *국어토씨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박선옥·양경모. (2008). 일본어의 부치사.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2. 223-233. 서울: 월인.

- 송경안. (200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언어* 49(1), 23-49.
- 송경안. (2008). 품사의 유형론.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9-52. 서울: 월인.
- 송경안. (2010). 인칭대명사 유형론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독일언어문학* 47, 65-90.
- 송경안 · 김순임. (1998). 독어, 영어, 불어의 조동사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9. 97-133.
- 송경안 · 이기갑 외. (2008). *언어유형론* 3. 서울: 월인.
- 양경모. (2003). 일본어의 품사. 세계 주요 언어 비교포럼 발표논문.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 이광정. (1987). *국어품사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이충희 · 김원필. (2008). 스페인어의 기본문형.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
- 정규영. (2008). 아랍어의 기본문형.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
- 허성태 · 임홍수. (2008). 러시아어의 기본문형.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1. 서울: 월인.
- 홍재성. (1999). 한국어 문장과 그 구조. 남기심 · 이상익 · 홍재성(1999).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pp. 209-242).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J. M. (2000). Auxiliary. In B. Geert, C. Lehmann, & J. Mugdan (Eds.) *Morphologi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Flexion und Wortbildung* (pp. 808-820). Berlin: Walter de Gruyter.
- Anward, J. (2001), Parts of speech.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pp. 726-735). Berlin: Walter de Gruyter.
- Baker, M. (2003), *Lexic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t, D. N. S. (1994),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Bhat, D. N. S. (2000), Word classes and sentential functions. In P. Vogel, & B. Comrie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pp.47-64). Berlin: Walter de Gruyter.
- Bhat, D. N. S. (2004), *Pronouns*.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Bhat, D. N. S. (2005), Third-person pronouns and demonstratives.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178-181).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 B.(1978), Ergativity. In W .P. Lehmann. (Ed.).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pp. 329-394), Sussex: The Harvester Press,
- Diller, A. (1994), Thai. In C. Goddard, & A. Wierzbicka (Eds.), *Semantic and lexical universals* (pp. 149-170). Amsterdam: John Benjamins.
- Siewierska, A. (Ed.). (1998), *Constituent order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 Dryer, M. (2005a), Definite articles.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154-157).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Dryer, M. (2005b), Indefinite articles.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158-161).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Ed.). (2004). *Coordinating construc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awkins, J. A. (1983), *Word order universals*. Academic Press.
- Heine, B. (1989). Adposition in African languages. *Linguistique Africaine*, 2. 77-127.
- Heine, B. (1993), *Auxiliaries: Cognitive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ine, B. (2004a). *Connective expressions in African language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Language Typology Workshop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ct. 18-21. 2004.
- Heine B. (2004b). *Adposition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Language Typology Workshop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ct. 18-21. 2004.
- Hengeveld, K.(1992), *Noun-verbal predication: Theory, typology, diachrony*. Berlin: Mouton de Gruyter.
- Hinds, J. (1986). *Japanese*. London: Croom Helm.
- Keenan, E. (1985). Relative claus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141-1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nig, C. (2004), *Case in Afrika*. Paper presented in the Language Typology Workshop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ct. 18-21.
- Krishnamurti, B. (2003), *The Dravidian languages*.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tmann, B. (1997). *Adverbial subordination: A typology and history of adverbial subordinators based on European languages*. Berlin: Mouton de Gruyter.
- Mcshane, M. J. (2005), *A theory of ellipsis*.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Noonan, M.(1985). Complementation.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 (pp.42-1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ell, J. (1969), *A reference grammar of colloquial Burmese*.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r, R. (1989), *Die Morphosyntax des 'Adjektives' im Sprachvergleich*. Frankfurt: Peter Lang.
- Rijkhoff, J. (2000), When can a language have adjectives? In P. Vogel, & B. Comrie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pp.217-257). Berlin: Walter de Gruyter.
- Sasse, H.-J.(1993), Syntacti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n J. Jacobs, A. v. Stechow, W. Sternefeld, &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pp. 646-685). Berlin: Walter de Gruyter.
- Schachter, P. (1985), Parts of speech system. In T. Shopen. (1985).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3-6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ssen, L.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안종기

526-702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대불대학교 영어교육과

전화: 061-469-1203

이메일: jkahn@db.ac.kr

#### 송경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Received on 6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1 August, 2011

Accepted on 31 August, 2011